

2024년 7월 8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여름의 승부처를 앞둔 구간

한국 증시는 1) 미국 6월 고용결과, 2) 미국 6월 CPI, 3) 파월의장 상원 청문회 발언, 4) 한은 금통위, 5) JP모건,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의 주요기업 실적, 5) 삼성전자와 LG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코스피 이익 전망 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2,900pt 진입을 시도할 전망 (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780~2,910pt).

이번 주에도 매크로, 실적 단에서 굵직한 이벤트가 대기 중에 있음. 우선 10일(수) 파월 의장의 상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6월 고용 수치가 지난주 ECB 포럼에서 “고용시장은 탄탄하다”고 했던 그의 판단에 발생하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미국의 6월 CPI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이벤트. 6월 CPI를 통해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디스 인플레이션 재개”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지, 또 6월 FOMC 의사록에서 금리인하 전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더 많은 증거를 보고 싶어하는 대부분 연준 위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지도 관건, 지난 삼성전자, LG전자 어닝 서프를 통해 반도체 포함 IT 업종 및 이를 포괄하는 코스피 전반적인 영업이익 전망이 추가로 개선될 지 여부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Market 김지연
jeehyun12@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5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미국 고용지표 추가둔화, 파월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언급 등에 시장금리 하락, 미 증시 신고가 경신이 이어진 가운데, 주중반 코스닥 중심으로 변동성 확대되기도 했으나 삼성전자 잠정실적 결과에 주목하며 위험선호심리 확산 (KOSPI +2.3%, KOSDAQ +0.84%)

1일(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변동성 확대, 시장금리 상승 등이 반도체, 자동차 수출주를 중심으로 약세 압력을 가했으나, 바이오, 이차전지, 저 PBR 등 최근 소외 업종들이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코스피 2,800pt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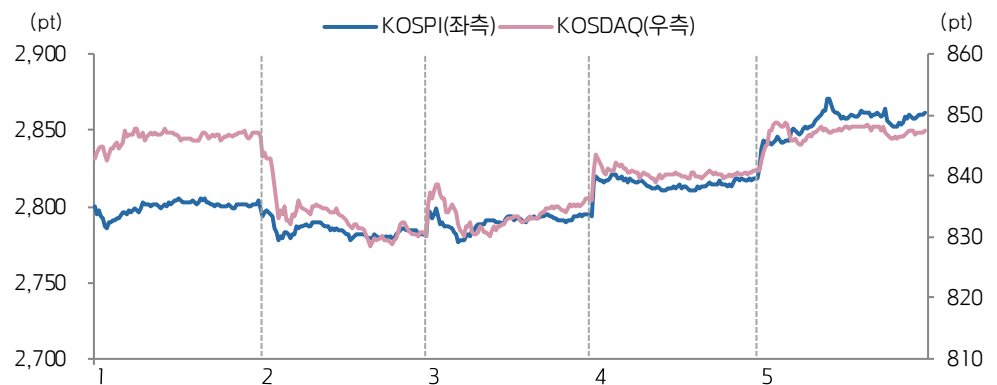
그러나 2일(화) 트럼프 발 미국 정책 불확실성 등에 따른 외국인의 약 1 조원 대의 대규모 코스피 선물 순매도, 금투세 도입 불확실성 등에 따른 중소형주 약세 등에 코스닥 2%대 급락. 코스피는 200 일선에서 기술적으로 지지된 반면, 코스닥은 200 일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 확산.

이후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유입, 미국 증시 신고가 경신, 파월 의장의 완화적 발언에 따른 금리 하락 및 개별 업종 호재로 성장주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 또한 2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향 HBM 품질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도 직후 삼성전자 3%대 강세 보이며 코스피 연고점 경신을 견인. 5일(금) 삼성전자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10.4조원으로 컨센서스 8조원 중반대를 크게 상회, 이후 주가 강세 및 위험선호심리 회복, 금리 변수로 조정 받았던 수출주 역시 반등.

업종별로 의약품(+7.93%), 전기전자(+4.84%), 증권(+3.94%), 금융업(+3.78%), 철강금속(+1.99%) 강세, 음식료품(-6.3%), 의료정밀(-6.08%), 기계(-3.86%), 운수장비(-3.43%), 전기가스업(-2.85%) 약세.

외인(+1조 6,371억원)은 전기전자(+2조 1,838억원), 의약품(+1,568억원), 음식료품(+605억원), 철강금속(+214억원), 중심으로 순매수, 기관(+2조 2,494억원)은 전기전자(+1조 5,771억원), 금융업(+6,565억원), 의약품(+2,081억원), 보험(+1,255억원)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7 월 8 일	월	유로존	Sentix 투자자신뢰지수	7 월	0	0.3
		미국	CB 고용동향지수	6 월	-	111.44
7 월 9 일	화	미국	전미자영업연맹 소기업 낙관지수	6 월	89	90.5
		발언 회의	파월 미연준 의장 NATO 정상회의(9~11 일)			
7 월 10 일	수	한국	실업률	6 월	-	2.8%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YoY)	6 월	0.4%	0.3%
			소비자물가지수 (MoM)	6 월	-	-0.1%
			생산자물가지수 (YoY)	6 월	-0.8%	-1.4%
			행사 공개	삼성전자 갤럭시 Z 시리즈 언팩행사 OPEC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7 월 11 일	목	독일	소비자물가지수 (YoY)	6 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6 월				0.1%	0.1%(0.1%)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MoM)			6 월	0.2%	0.2%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YoY)			6 월	3.4%	3.4%
	소비자물가지수 (YoY)			6 월	3.1%	3.3%
	소비자물가지수 (MoM)			6 월	0.1%	0.0%
한국	한은 금통위 금리 결정		7 월	3.5%	3.5%	
실적 발언 파생	펍시코					
	애틀란타 연은 총재					
	옵션만기일					
	7 월 12 일	금	미국	근원 생산자물가지수 (MoM)	6 월	0.1%
생산자물가지수 (MoM)				6 월	0.1%	-0.2%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7 월	-	3.0%
미시간 5년 인플레이션 예상				7 월	-	3.0%
미시간대 소비자기대지수				7 월	-	69.6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7 월	67.0	68.2
중국			수출액 (YoY) (7/13)	6 월	8.0%	7.6%
			수입액 (YoY) (7/13)	6 월	2.9%	1.8%
		무역수지(USD) (7/13)	6 월	\$83.70b	\$82.62b	
실적		JP 모건, 웰스파고, 씨티그룹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 1) 미국 6월 비농업부문 고용결과, 주중 예정된 2) 미국 6월 CPI, 3) 파월 의장 상원 청문회 발언, 4) 한은 금통위, 5) JP모건,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외 주요기업 실적, 5) 삼성전자와 LG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코스피 이익 전망 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2,900pt 진입을 시도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780~2,910pt).

5일(금) 미국 증시에서는 6월 고용 부진에 따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에 힘입어 테슬라(+2.1%), 애플(+2.2%) 등 엔비디아(-1.9%)를 제외한 M7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S&P500과 나스닥이 또 한 차례 신고가를 경신(다우 +0.2%, S&P500 +0.5%, 나스닥 +0.9%). 이날 발표된 미국의 6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은 20.6만건으로 컨센(19.1만건)을 상회했으나, 5월 수치 하향조정(기존 27.2만건 → 수정 21.8만)됐으며, 6월 일자리 대부분이 정부 일자리 창출(+7만건)에서 기인했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Bad is Good”으로 해석된 상황. 실업률(4.1%)의 컨센(4.0%), 시간당 임금 컨센 부합(3.9%YoY) 등 역시 전반적인 고용시장 둔화를 시사. 이는 연준의 3분기 중 인하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10년물 금리 하락 및 달러 약세를 유발했으며, 그 과정에서 증시에 모멘텀이 형성됐던 것으로 판단(Fed Watch 상 9월 인하 확률 72%).

이번 주에도 매크로, 실적 단에서 굵직한 이벤트가 대기 중에 있음. 우선 10일(수) 파월 의장의 상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6월 고용 수치가 지난주 ECB 포럼에서 “고용시장은 탄탄하다”고 했던 그의 판단에 발생하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1일(목) 예정된 미국의 6월 CPI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이벤트. 6월 CPI를 통해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디스인플레이션 재개”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지, 또 6월 FOMC 의사록에서 금리인하 전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더 많은 증거를 보고 싶어하는 대부분 연준 위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지도 관건.

블룸버그 상 6월 CPI 컨센서스(YoY)는 헤드라인이 3.1%로 전월(3.3%)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형성된 반면, 코어는 3.4%로 전월(3.4%)과 동일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형성. 그 가운데,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모델로 8월 발표 예정인 7월 헤드라인과 코어 CPI가 각각 3.15%, 3.60%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요인. 다만,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진 상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6월 BofA 서베이 상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1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응답률은 5월 41%에서 32%로 감소). 전반적인 미국의 소비둔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실제 인플레이션에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6월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내 가격지수가 둔화됐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 또 “6월 고용 → 파월 의장 발언 → 6월 CPI”로 이어지는 일련의 이벤트를 치른 이후 “9월 인하 시작 + 연내 2회 인하”로 형성된 컨센서스 변화 여부도 금리 및 달러 경로를 통해 증시 방향성에 영향을 줄 전망.

한편,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1분기 실적시즌과 유사하게 2분기 실적시즌은 순조롭게 출발. 이에 힘입어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증가 기준으로 2,860pt를 돌파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한동안 소외됐던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와 상승 쪽으로 키 맞추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모습. 이번주에는 8일(월)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면 별 다른 실적 발표가 없기는 함(미국은 주 후반 금요일부터 JP모건, 웰스파고 등 금융주들의 실적 시즌시작). 하지만 지난주 상기 두 업체의 분기 실적 결과를 반영해, 반도체 포함 IT 업종 및 이를 포괄하는 코스피 전반적인 영업이익 전망이 추가로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 따라서, 금주 중 단기 숨고르기 국면이 출현할 수 있겠으나, 증시 방향성은 위로 설정해놓고 대응해나가는 것이 적절할 전망(7월 8일 현재, 연간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는 270.7조원).

2024년 7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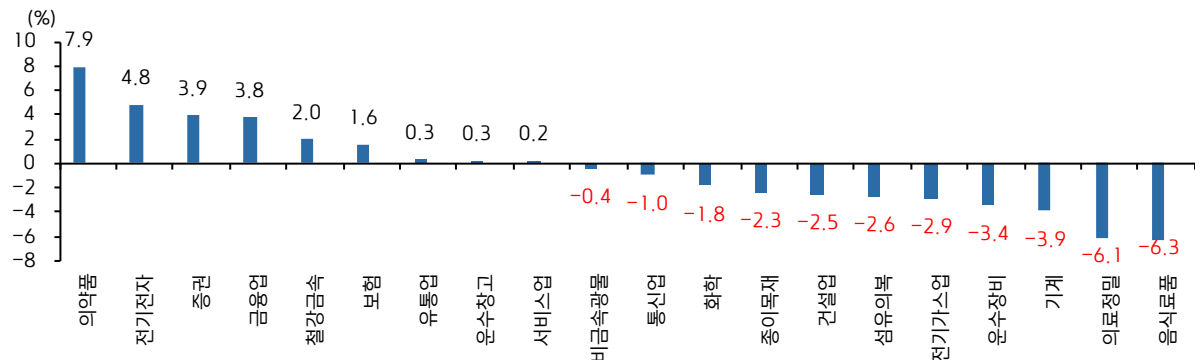
KIWOOM WEEKLY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2,862.23	1.3	2.3	6.4	7.8
대형주	2,879.16	1.6	3.3	7.9	8.6
중형주	3,028.21	-0.2	-2.2	-0.1	8.7
소형주	2,343.45	-0.1	-2.5	-1.6	2.5
코스피200	395.47	1.8	3.0	7.9	10.5
코스닥	847.49	0.8	0.8	-0.4	-2.2
대형주	2,045.02	2.2	4.7	3.2	0.7
중형주	741.24	-0.5	-1.8	-0.9	3.7
소형주	2,638.74	-0.2	-2.4	-4.7	-6.0
코스닥150	1,424.92	2.0	4.7	3.4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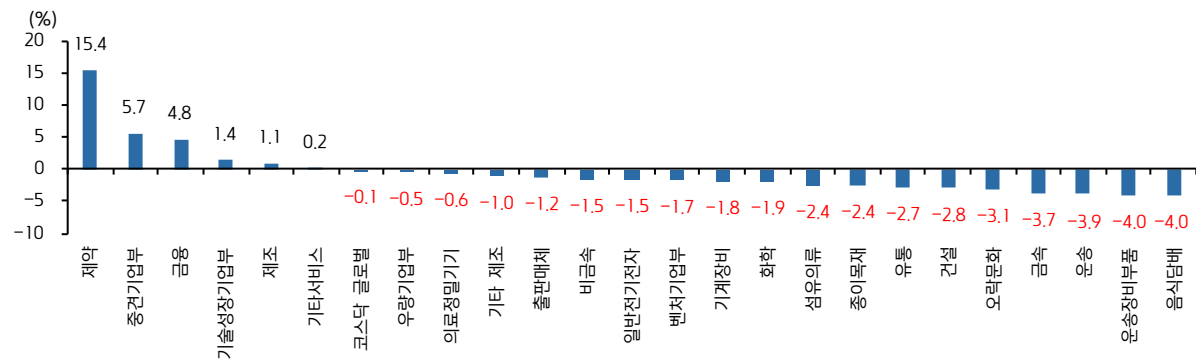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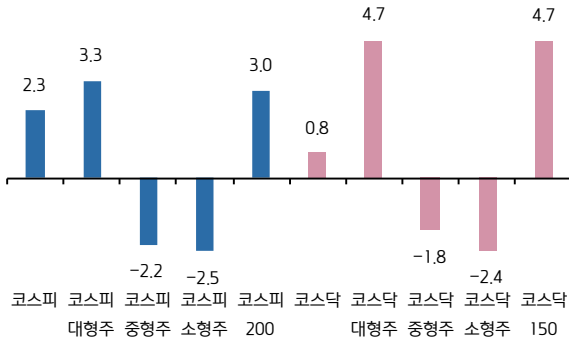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4년 7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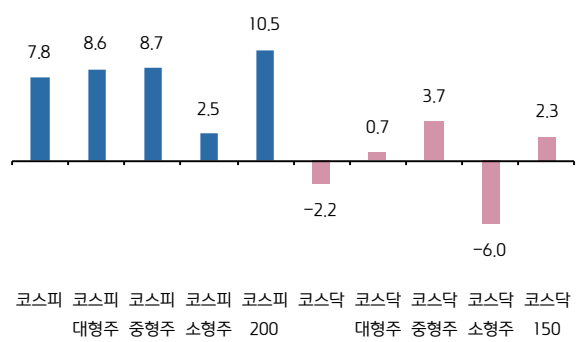
KIWOOM WEEKLY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시가총액 상위 기업 주간 수익률

순위	종목코드	코스피	시가총액(억원)	5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주간수익률(%)
1	005930	삼성전자	5,199,681	21,351	6.9
2	000660	SK 하이닉스	1,718,086	8,821	-0.2
3	373220	LG 에너지솔루션	836,550	1,281	9.5
4	005380	현대차	588,460	2,586	-4.8
5	207940	삼성바이오로직스	571,527	1,181	10.5
6	000270	기아	505,021	1,171	-2.3
7	068270	셀트리온	403,173	1,231	6.6
8	105560	KB 금융	355,897	1,578	12.4
9	005490	POSCO 홀딩스	318,834	1,054	3.9
10	028260	삼성물산	274,321	512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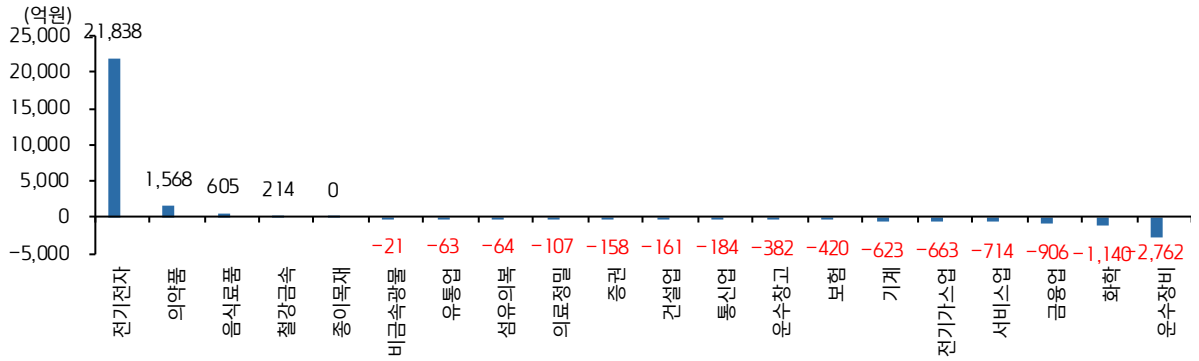
순위	종목코드	코스닥	시가총액(억원)	5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주간수익률(%)
1	247540	에코프로비엠	185,920	1,036	3.9
2	196170	알테오젠	148,284	2,399	-0.5
3	086520	에코프로	130,875	1,622	9.1
4	028300	HLB	121,817	6,037	59.1
5	022100	포스코 DX	56,785	182	-2.6
6	066970	엘앤에프	53,753	503	9.5
7	348370	엔캠	46,760	813	2.2
8	000250	삼천당제약	46,141	4,599	34.6
9	068760	셀트리온제약	38,893	125	5.3
10	058470	리노공업	33,533	326	-6.4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4년 7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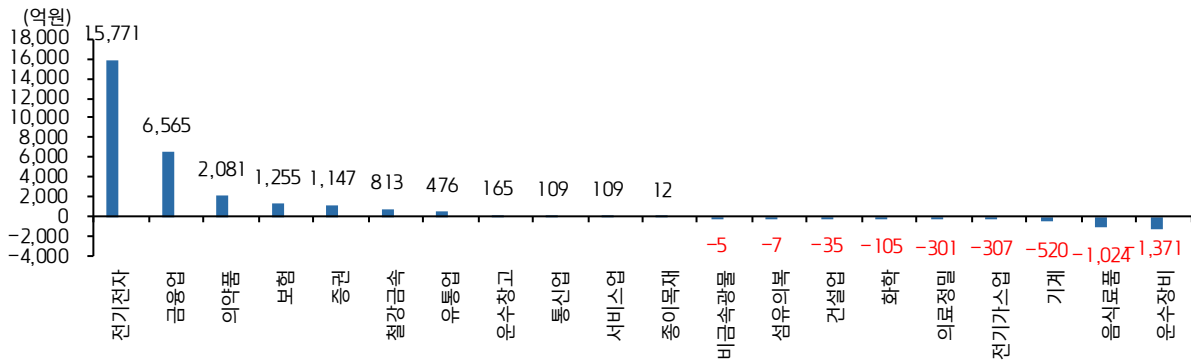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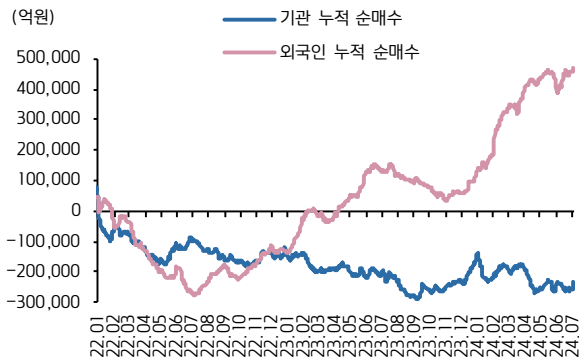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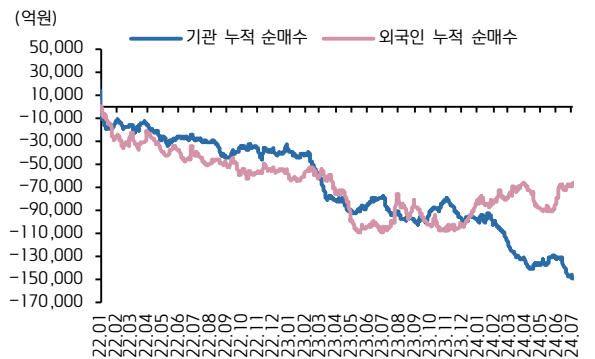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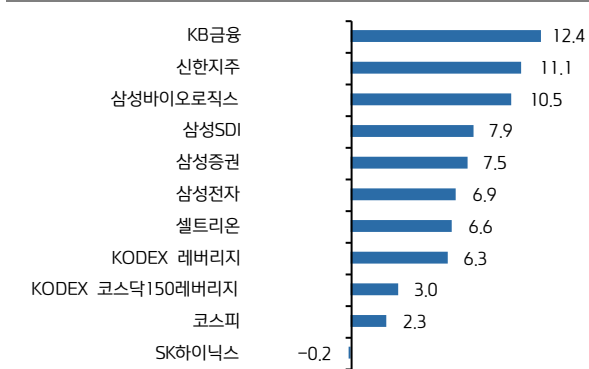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4년 7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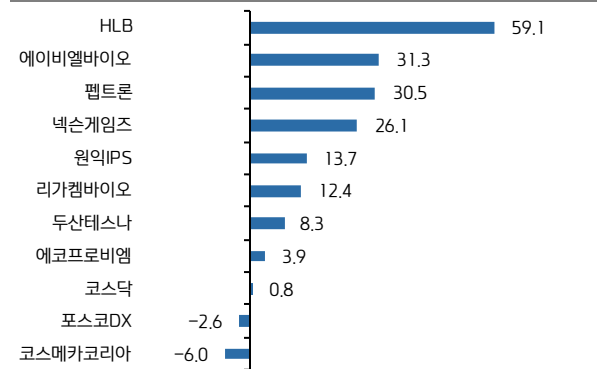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기관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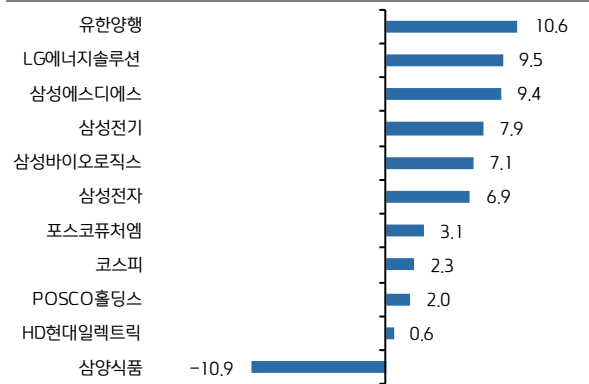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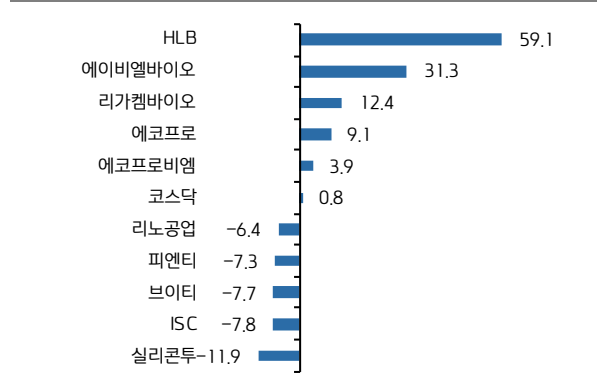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외국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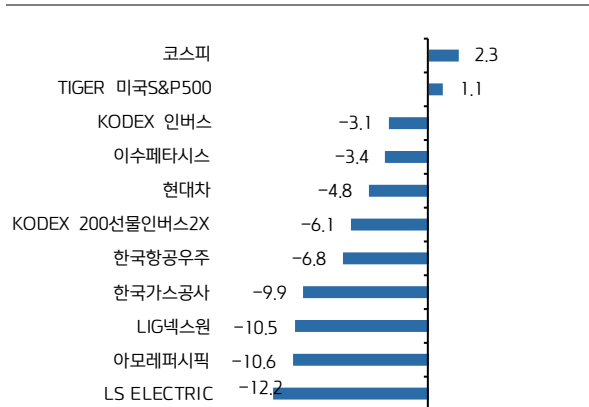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외국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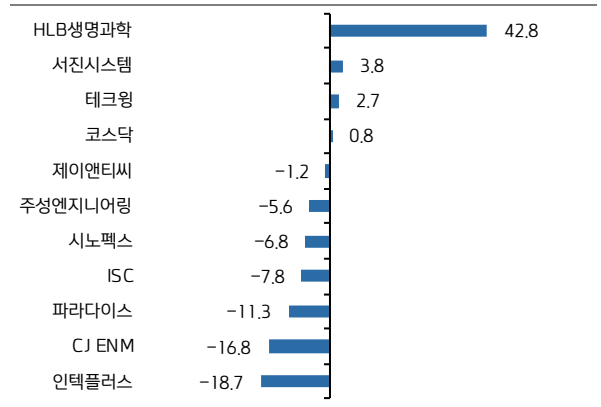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개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개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IWOOM WEEKLY

(조원)

신용증자잔고(좌)

예탁금 대비 신용증자 잔고 비중(우)

최근 1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 3년 평균

(%)

19/01 19/06 19/11 20/04 20/09 21/02 21/07 21/12 22/05 22/10 23/03 23/08 24/01 24/06

국가/지수	비율 (%)
프랑스	2.9
이탈리아	2.9
베트남	2.8
그리스	2.2
브라질	1.8
아일랜드	1.8
영국	1.7
신장국	1.7
전세계	1.6
선진국	1.6
S&P500	1.4
독일	1.2
스페인	1.1
KOSPI	1.0
영국	0.9
호주	0.8
스위스	0.6
멕시코	0.4
대만	0.1
아르헨티나	0.1
러시아	0.0
중국	-0.3

산업	비율 (%)
자동차 및 부품	20.1
하드웨어	4.1
반도체 및 장비	3.8
NASDAQ	2.6
소프트웨어	2.4
은행	2.2
S&P500	1.4
엔터/미디어	1.3
금융	1.1
유통	0.7
식품품	0.4
유틸리티	0.4
에너지	0.3
보험	0.2
자본재	0.0
상업 및 전문서비스	-0.2
음식료 및 담배	-0.4
가정용품	-0.6
소재	-0.6
통신	-0.6
부동산	-0.6
운송	-0.7
제약	-1.4
호텔/레저	-2.0
건강관리	-2.0
내구소비재, 의료	-2.1

키움증권 